한국판 '엘 시스테마' 희망의 연주는 계속된다

한국판 '엘 시스테마'(El Sistema·남미 베네수엘라의 빈민층 아이들을 위한 오케스트라 시스템)로 전국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초록우산 드림 오케스트라'가 연습장소를 잃고 길거리로 내몰리게 됐다는 보도〈광주일보 2011년 12월 27일 2면〉이후, 목포 용호초등학교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 희망의 연주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해산 위기 초록우산 드림 오케스트라 목포 용호초등학교에 새 연습실 마련

전남지역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음악교육을 통해 새로운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지난 2010년 10월 창단된 드림 오케스트라는 지난 1년 동안 장소문제와 운영비 문제, 후원금 부족 등으로 여러 차례 위기를 겪어왔다.

해산 위기에 처한 단원들은 "초록우산 드림 오케스트라에서 계속 연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내용의 간절한 편지를 전남도교육청·전남도청·협력시설·언론사 등 각계에 보냈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로 최근 목포시 용호초등학교에 새로운 연습장소를 마련하게 됐다.

용호초등학교 최성수 교장은 "초록우산 드림 오케스트라에 관한 내용을 접하고 매우 안타까웠다. 이 아이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연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장소를 제공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어린이재단 전남본부 관계자는 "초록우산 드림 오케스트라를 통해 20명의 강사, 13개 파트 189명의 아동들이 이곳에서 음악을 통해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며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 음악을 통한 치유와 변화는 실로 놀랍다"고 강조했다.

시설에 입소해 자라온 김현성(가명) 군은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판정을 받아 약물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으나, 이곳에서 15개월여 동안 악기연주를 하면서 성격도 차분해지고 복용 중이던 약도 먹지 않을 만큼 심리적 안정감을 되찾았다"고 말했다.

또 최민수(가명) 군은 지적능력 때문에 아이들에게 따돌림과 놀림을 받아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힘들어 했으나 방과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며 드림 오케스트라단에 들어온 이후 친구들과 대화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됐다.

김한림 지휘자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의 변화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 폭력적이고 집중을 잘 못했던 아이들이 이곳에서 음악을 배우면서 부터는 차분하고 밝은 성격으로 변화하고 집중력 또한 눈에 띄게 좋아졌다"면서 "음악을 통한 아이들의 변화를 직접 목격하고 보니 왜 '엘 시스테마'라고 하는지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u@

"청정축산 지키자" 방역 결의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19일 지역본부에서 관내 19개 축협 경제상무와 농협 축산사업장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방역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방역책임자들은 가축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질병 예찰과 축사 소독활동 지원 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 제공〉

해남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가동

2만8000두 돼지분뇨 처리 연간 액비 3만5000t 생산

올해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가운데 해남군이 가축분뇨를 액체비료(액비)로 만드는 공동 자원화시설을 최근 완공,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해남군은 "민간 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 30억원을 들여 황산면 일신리 일원에 하루 유입처리용량 95㎥ 규모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완공, 관내 돼지분뇨를 100% 육상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08년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에 이은 2번째 가축분뇨 처리 시설이다. 그동안 한우 농가들은 분뇨를 자체처리해 왔으나 양돈 농가들은 액상성분이 많은 돼지분뇨 처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농가들이 개인적으로 액비화할 수 있는 추가시설을 설치할 경우 돼지 2000두 기준 연간 시설투자 비용과 운영비용이 최소 5억원이 소요되는 등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 2008년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을 건립해 가축분뇨를 처리해 왔으며, 지난 2011년 5월 500㎥ 탱크를 증설해 액비화 해왔다.

이와 함께 군은 관내에서 배출되는 축분이 하루 275t 정도로 처리한계에 달하자 분뇨자원화 시설(1기 8600㎥ 탱크)을 추가로 설치했다.

군은 공동자원화 시설이 준공 가동됨에 따라 관내 돼지농가 17곳(2만8000두)과 분뇨처리 계약을 맺고 연간 액비 3만5000t을 생산, 경종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준공에 따라 양돈농가의 운영비 부담을 줄여주고, 경종농가에 액비살포 지원, 자원 재활용 등 1석3조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여수 박람회장 소방청사 신설

'2012 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최 지원을 위해 박람회 부지내에 소방청사가 신설됐다.

여수소방서는 강동석 박람회조직위원장과 김근수 사무총장, LH공사 관계자 등을 비롯한 소방서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박람회 119 안전센터' 준공식을 가졌다.

119 안전센터는 철골 판넬조, 지상 2층 1동으로 부지면적 1722㎡, 연면적 900.86㎡ 규모로 지난해 8월에 착공해 올 2월에 완공했다.

소방공무원 22명(소방차 2대·구급차 1대)의 새보금자리가 될 119 안전센터는 친환경적이고 현대식 기능을 갖췄다.

음두호 여수소방서장은 "박람회 기간동안 소방안전 지킴이로서의 역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화기자

꿀벌 집단폐사는 농약 탓 이탈리아 연구진 발표

꿀벌들이 떼죽음하는 '꿀벌 군집붕괴현상(CCD)'이 옥수수 파종에 사용되는 농약 코팅기술과 관련이 있다는 최신 연구가 발표됐다.

이탈리아 파도바 대학 연구진은 봄철에 일어나는 CCD가 농약으로 옥수수를 코팅처리하는 새로운 파종기술과 관련이 있음을 발견했다고 환경과학과 기술지 최신호에 발표했다.

1990년대 말부터 파종할 옥수수를 '네오니코티노이드'(neonicotinoid) 농약으로 코팅 처리하는 기술이 도입된 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광범위한 CCD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연구진은 관찰 결과 3월 중순부터 5월 사이에 옥수수 파종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농약 구름 사이를 날아다닌 꿀벌들이 죽는 것을 발견했다.

연구진은 양봉업자들이 파종기 옥수수밭에 설탕물 공급기나 벌통을 놓아두어 꿀벌들이 농약에 노출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0년 꿀벌 에이즈로 불리는 '낭충봉아부패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꿀벌 집단폐사가 잇따라 양봉농가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연합뉴스

보성 삼베짜기 '바쁘다 바빠'

윤달 앞두고 수의 주문 폭주

음력 3월 윤달을 앞두고 대마(大麻) 주산지인 보성지역 삼베 작업이 활기를 띄고 있다.

19일 보성군에 따르면 4년마다 돌아오는 윤달을 앞두고 윤달에 질 좋은 삼베로 수의(壽衣)를 만들어 놓으면 부모님이 건강하게 장수한다는 풍습에 따라 명품 삼베를 구입하려는 문의와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보성은 해양성기후와 대륙성 기후가 함께 하는 지역으로 예로부터 친환경 대마를 많이 재배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삼베의 고장으로 자리하고 있다.

보성삼베는 까다로운 전통삼베의 제조기법 그대로 원단을 제작하며, 모든 제품을 손으로 직접 가공·생산하는 섬세함과 기술이 요구되는 고된 작업을 거쳐 완성된다.

요즘 윤달을 맞아 인기 있는 수의 한 벌 가격은 250만원을 웃돈다.

이처럼 보성삼베가 고가인 것은 자연스럽게 부식되는 1등급 100% 천연삼베로 제작하고,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보성삼베랑 이찬식 대표는 "한때 우리나라 삼베 유통량의 50% 이상을 차지했던 보성삼베지만 올해는 삼과 베가 부족해 주문이 밀려들어도 일정량 이상의 수의는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지난 3년간 10억원을 투자해 '지리적표시'(제45호) 등록으로 생산자를 보호하고 품질을 향상하는 등 지역 향토자원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또한 향토자원인 삼(대마)을 활용한 대마웰빙관과 체험관을 건립해 관광객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농촌마을 삼베체험활동을 꾸준히 운영, 보성전통삼베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선상근기자 sun@

태양광, 태양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에너지절약

이제 전기세, 난방비걱정 은 평생 끝!! 우리집 에너지는 내가 만들어 쓴다!

신축 계획중인 고객님께는 더 많은 혜택을 드립니다!

발전을 시작하면 눈금이 반대방향으로 회전한다.

겨울엔 난방! 여름엔 에어컨! 온수물! 도 태양열로~

설치전문업체가 국내 최저의 가격으로 최고효율의 태양광,태양열을 설치할 절호의 기회를 드립니다.

주택용 태양광 한전 연계형 계통설비 (3kw이하~10kw이하)설치계통합니다.

최장 36개월 분할상환 가능

태양광발전(주택용) 설치 후 효과 (월 350kwh 생산 기준표)

기존청구요금(사용전력량 : kwh)	설치시 청구요금	절감요금
5만원(약 321kwh)일때	약 1,130원	48,870원
10만원(약 454kwh)일때	약 8,020원	92,270원
15만원(약 531kwh)일때	약 18,380원	131,810원
20만원(약 597kwh)일때	약 31,010원	169,510원
25만원(약 662kwh)일때	약 47,440원	202,640원
30만원(약 728kwh)일때	약 66,850원	233,150원

어떠한 궁금점이라도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NAVER 강남산업 검색

상담문의 1588-4208 010-3624-5399 010-4764-0531

법인등록번호 : 409-86-22826

(주)강남산업 KANGNAM INDUSTRY

대한불교조계종 문빈정사 납골당 허가번호 : 제2006-1

극락전 납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빈정사 극락전 납골당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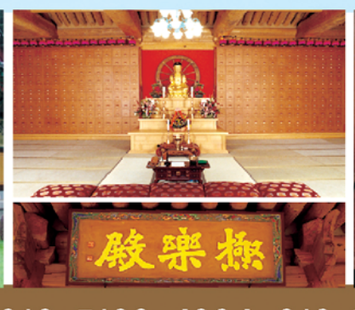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벌초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떼가 벗겨진 묘, 동절기를 거치며 붕괴된 묘, 개인이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의식 및 친족, 이웃간의 상호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연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비번한 자연재해로 인한 유실과 훼손 여름철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묘지 유실과 훼손은 전국적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묘지유실은 물론이고 심지어 시신마저도 유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시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봉분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시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장례법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모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 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납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빈정사



무등산 문빈정사 납골당 예약 및 봉안문의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